"광주 교통문화 시민운동 한 달 만에 획기적 성과"

김경한 법무 인터뷰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0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 참관차 광주를 방문해 "'예향' 광주에서 비롯된 교통문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광주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광주시민과 각계 단체 등이 주축이 된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이 출범 한 달 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 운동은 검찰이 동인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추진 주체가 광주시민 전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역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광주의 방법'을 전국 도시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호남인사 소외론 사실무근

미디어법 헌재서 가려질 것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과정에서 불거진 '호남 소외' 논란에 대해 "천성관 전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보자가 호남 사람이라는 여론 등은 후임 인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며 "호남 출신 배제론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특정 지역을 의도적으로 홀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능력·품성·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을 거쳐 가장 적임자를 고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회의 미디어법 충돌과 관련,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재투표 및 대리투표 논란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미디어법의 국회 충돌은 안타깝다"면서도 "이 법은 선진 방송과 신문을 만드는데 필요한 법안으로, 이번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은 헌재의 판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우치동물원 17년만에 리모델링

관람객·동물 더 가까이 '감성 동물원' 거듭난다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

광주 우치동물원이 개장 17년만에 리모델링에 들어가 관람객들이 동물과 좀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감성 동물원'으로 거듭난다.

광주시와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 개관한 우치동물원(12만1천302㎡)은 138종 653마리의 각종 동물들이 사육되고 있는 호남지역 대표적인 동물원이다.

그러나 관람객 동선을 고려하지 못한 배치, 동물과 직접 접촉 공간 부족, 편의시설 미흡 등으로 인해 지난 2006년 71만3천642명에서 지난해 64만679명으로 최근 3년 사이 관람객이 10% 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우치동물원 시설개선(리뉴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올 연말께 구체적인 시설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국내·외 유명 동물원의 사례 등을 검토해 관람객과 동물과의 접촉 공간을 최대한 늘리고, 여름·겨울철에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호남의 대표적인 동물원인데도 그 위상에 맞는 다양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우치동물원을 감성동물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안을 만들어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치동물원에는 20동(85칸)의 동물사에 포유류 66종 272마리, 조류 47종 316마리, 파충류 25종 65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열대식물원, 보조식물원, 표본전시실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총 관람객은 64만679명으로 이 중 유료관람객은 22만9천595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천755명이 다녀간 셈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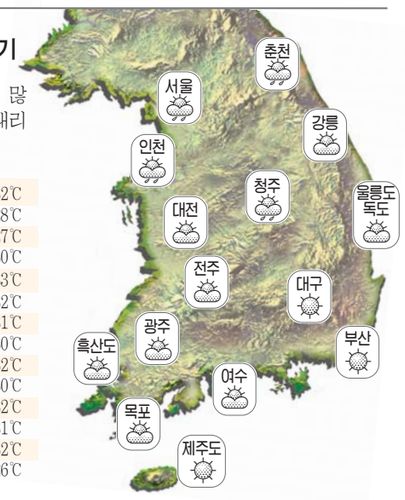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0분 / 해짐 19시 37분 — 달뜸 15시 25분 / 달짐 00시 21분

한낮 '땡볕'…한때 소나기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으며 곳에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22/32℃
목 포	구름많음	22/28℃
여 수	구름많음	22/27℃
완 도	구름많음	21/30℃
구 례	구름많고 비	21/33℃
해 남	구름조금	21/32℃
장 흥	구름많음	21/31℃
고 흥	구름많음	21/30℃
순 천	구름많음	22/32℃
영 광	구름많음	22/30℃
진 도	구름많음	22/32℃
전 주	구름많음	22/31℃
남 원	구름많음	20/32℃
흑산도	구름많음	20/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1.5m
먼바다	북동~동	1.0~2.0m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 식중독지수 경고 / 불쾌지수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8:52 22:24	02:57 14:55
여수	03:40 18:04	10:17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토)	2(일)	3(월)	4(화)	5(수)	6(목)
날 씨						
최저/최고	22/32	21/31	21/31	22/29	21/30	22/31

"인터넷 중독 함께 극복해요"

광주 청소년상담센터 다산수련원에 학교 개설

광주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인터넷 중독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부터 강진군 다산수련원에서 '인터넷 중독 극복 학교'를 연다.

11박12일 일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 중독 극복 학교는 치료형 기숙 프로그램으로 상담심리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전문상담사, 수련활동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한다. 이들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에게 상담과 게임 등을 통해 자기통제 능력과 사회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센터 측은 극복 학교 졸업 후에도 개별적으로 상담전문가와 연계시켜, 이들 청소년들을 인터넷 중독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사업을 벌여 6천명의 청소년에게 개인심리치료 및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박병훈 소장은 "청소년기의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며, 특히 성인이 된 뒤에도 정상적인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큰 요인이 된다"며 "병원 치료 보다는 자연환경 속에서 같은 고민을 가진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중독에서 헤쳐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짰다"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통사고 위험 지역 56곳 특별관리

광주경찰청 내달 지정

광주경찰이 '교통사고 1위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 56곳을 지정,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광주경찰청 대회의실에서 교통사고 예방대책 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교통사고 8천231건을 분석, 같은 장소에서 15건 이상 일어난 지점 56곳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구별로는 ▲동구 7곳 ▲서구 20곳 ▲남구 6곳 ▲북구 17곳 ▲광산구 6곳 등이다.

경찰은 다음달 31일까지 특별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 사고유형과 도로형태, 법규위반 등 9개 요소로 나눈 뒤 교통안전시설물 개선과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 단속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점멸신호 운영(240곳→400곳), 신호기 위치 조정(10곳), 보행자 작동신호기(23곳→43곳)를 확대 설치 중이며 비보호 좌회전 확대 운영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청 관계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도로를 지날 땐 안전운전에 유의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 남도 순례

법무보호공단 순천지소

'숙식 보호' 청소년 27명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순천지소에서 생활 중인 숙식보호 청소년들이 '법질서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며 남도를 순례한다.

3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순천지소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제3회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 및 법질서 바로 세우기 청소년 남도순례 대행진'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숙식보호청소년들에게 자신감과 성취욕, 조직생활에 대한 적응력 및 협동심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는 공단 소속 직원 3명을 포함한 숙식보호청소년 24명 등 모두 27명이다. 이들은 다음달 4일 순천지소를 출발해 10일 동안 여수~광양~구례~보성~고흥간 250㎞를 순례한 뒤 최종목표지인 제주도 한라산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대행진 중 지역 곳곳에서 청소년 비행 예방과 법질서 바로 세우기를 위한 가두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숙식보호청소년은 기소유예된 청소년과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 대상 청소년으로 법무보호복지공단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폭우피해 광주천 복구 사업 이상기후·하천 흐름 반영해야"

환경운동연합 워크숍

올 장마기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광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구간 복구 과정에서 이상기후에 대비한 설계와 자연스러운 하천 흐름 반영, 하천 유지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북동신협 4층 강당에서 열린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광주천, 바람직한 복구방안 및 관리방안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워크숍에서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광주천 자연형하천사업의 홍수피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자연형하천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의 지형이나 수리, 수질, 생태환경은 물론 인문·사회적 배경 등을 감안하지 못했으며, 하천의 치수와 이수, 환경 보존을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 업무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번 수해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있어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워크숍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은 최근 실시한 '광주천 피해상황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현병순 모래톱 대표는 "각 구간마다 3~6건에 달하는 폭우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인공시설물에 집중됐다"며 "향후 복구하는 데 있어 이러한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